

奇門鍼法에 관한 研究

(『(手冊)神訣 및 保身訣』을 중심으로)

조 학 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Study on Gimunchimbeop(奇門鍼法)

(Laying stress on 『Singyeol(神訣) and Bosingyeol(保身訣)』)

Hak-Jun Jo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and methods: This research aims to study about Gimunchimbeop(奇門鍼法) from original text of 『Singyeol(神訣) and Bosingyeol(保身訣)』. I could know is contents about Gimunchimbeop(奇門鍼法) through result that interprets original text of 『Singyeol(神訣) and Bosingyeol(保身訣)』 with Hyeonto(懸吐) and analyzes, and Gimunchimbeop(奇門鍼法)'s contents are as following.

Results and Conclusions: 『Singyeol(神訣) and Bosingyeol(保身訣)』 is seen uses Honggukpoyeolbeop(洪局布列法)'s Saenggipalgwae(生氣八卦) among Gimunpogukbeop(奇門鍼法), and Yearngukpoyeolbeop(烟局布列法) that do Sigapoguk(時家布局) by putting first.

It Introduced method that depends to Saenggipalgwae(生氣八卦) in Sigapoguk(時家布局)'s occasion and selects, and doctors depend to Bideungpalbeop(飛騰八法)'s Palmaekpalhyeolbaegugungpalgwaedo(八脈八穴配九宮八卦圖) deciding Bongwae(本卦) via a day to look at patient and selects Juhyeol(主穴), Assign Saenggipalgwae(生氣八卦) laying stress on Bongwae(本卦) and makes Bojohyeol(補助穴) equivalent to Saenggi(生氣), good luck(福德) and Cheoneui(天宜). but, this need study more should use distinguishing how because was not proved.

Wonpando(圓板圖) and Babdo(方圖) from Eumyangdun(陰陽遁)'s from 1 Guk(局) to 9 Guk(局) are thing for Yearngukpoyeolbeop(烟局布列法). But it is few references about there decides Hyeolwi(穴位) that use even if arrange actually.

Through 『Singyeol(神訣) and Bosingyeol(保身訣)』, I could know truth that took advantage of strange news to acupuncture methods(鍼法) but specific practical use method does not remain. Need to establish body of theory in reply in hereafter therefore and prove the effect through presence at a sickbed practical use.

Key words: Gimunchimbeop(奇門鍼法), Honggukpoyeolbeop(洪局布列法), Yearngukpoyeolbeop(烟局布列法), Sigapoguk(時家布局), Bideungpalbeop(飛騰八法)

· 교신저자: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21,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043-649-1347, Fax. 043-649-1702,
E-mail: johohun@kornet.net

· 투고: 2005/12/02/ · 수정: 2005/12/13 · 채택: 2005/12/19

I. 序 論

『素問』에 鍼은 東方에서 전해져왔다고 하고, 또한 鍼을 잘 설명한 『靈樞』는 중국 중간에 없어져서 우리나라로 다시 구하러 왔다는 기록까지 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는 鍼術의 유래가 매우 깊지만 그 역사에 비하여 폭넓고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국시대에는 處方類의 서적이 많고 고려시대에도 역시 處方類의 서적과 『診脈圖訣』이라는 診斷類의 서적이 있을 뿐 鍼灸學 專門書를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서적을 수입하여 活版한 경우가 많았는데, 宋의 王維一의 『鍼灸圖經』을 보충한 『補注銅人經』, 『(鍼灸)資生經』(宋의 王執中이 撰), 『十四經發揮』, 『鍼灸集書』(明의 楊畋이 撰), 『神應經』(明의 陳會가 撰) 등이다. 우리나라 독자적인 鍼灸書籍으로는 柳成龍이 撰한 『鍼灸要訣』, 許任이 撰한 『鍼灸經驗方』가 현존해 있고, 그림으로 『銅人鍼灸圖』가 2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전해오지 않는다.¹⁾

鍼法은 經驗에 의한 鍼法과 이론적 바탕에 의한 鍼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五行鍼刺法, 靈龜八法, 飛騰八法, 子午流注鍼法 등이 있고, 우리 고유의 鍼法이라 하면 현재 많이 사용하는 舍岩鍼法, 太極鍼法 등이 있다.

『鍼灸要訣』은 李梴의 『醫學入門』을 藍本으로 하여 天地人物氣候相應說, 天地人物氣候相應圖, 正面經絡諸穴起止圖, 臟腑內觀圖, 臟腑條分, 十二經穴法治法鍼灸直橫圖, 督任脈穴圖, 十五絡脈論, 七經八脈圖, 治病奇穴, 明堂尺寸法, 點穴法, 調養法, 煉臍法 등의 내용이 있으나 독특한 理論이나 鍼法을 찾아보기 어렵다.

『鍼灸經驗方』 역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적이지만 독자적인 이론이나 鍼法은 없다.

『舍岩鍼灸要訣』은 舍岩道人이라고만 알려진 사람의 저서로서 『內經』과 『難經』의 刺鍼 理論을 바탕으로 正格, 勝格, 寒格, 熱格 등의 4가지 방법으로 각 經의 寒熱虛實에 대한 치료를 제시한 舍岩鍼法이라는 독특한 鍼法을 확립하였다.

著자가 1994년 여름에 天安에서 鍼法에 대해 필사한 手冊의 복사본을 우연히 얻었다. 그 표지에는 神訣, 保身訣 등의 名稱과 庚戌年¹⁾ 음력 4월 28日(양력 6월 5일)의 날짜만 적혀 있고 지은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있지 않았다. 아마도 전해 내려오는 鍼法이 있었을 텐데 鍼法의 名稱이나 구체적인 活用法, 만든 이에 대한 소개 등에 대한 설명은 없고, 본인이 臨床에서 活用하여 活用하기 쉽게 手冊으로 筆寫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飛騰八法の 文王八卦와 奇經八穴의 配屬, 奇經八穴의 位置, 鍼芒의 補瀉, 陽遁 陰遁의 局別로 찾아보기 쉽게 만든 方圖 및 회전하여 맞춰볼 수 있게 만든 3重의 圓板圖, 奇門의 각 卦의 應, 一開一闔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현재 알려져 있는 中國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鍼法과 내용이 다르다.

이 手冊에 적혀져 있는 鍼法의 내용과 용어가 ‘奇門學’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鍼을 시술하는 시간과 환자의 臟腑 虛實에 따라서 選穴하는 子午流注法과는 다르다.

‘奇門學’에서는 대상자를 만난 시간 또는 대상자의 四柱를 기준으로 八門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手冊에서는 患者를 만난 時間 또는 四柱를 기준으로 選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奇門鍼法’이라고 命名하였다.

‘奇門鍼法’이라는 用語는 이미 金光湖²⁾에 의해 사용된 적이 있고, 구체적인 活用法도 제시하였고 내용도 이 手冊과 흡사하나, 그 理論의 구체적인

1) 韓末이라고 가정하면 1910년경이라고 추정됨.

근거를 書籍에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에 奇門을 이해하고 이 手冊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奇門鍼法’의 대략적인 활용에 대한 根據와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手冊의 내용이 奇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우선 奇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第1章에 奇門의 布列法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하고, 第2章과 第3章에 手冊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2. 手冊의 原本을 복사한 것이어서 그대로는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스캔한 그림을 좌측에, 그것을 정리한 것을 우측에 배열하여 原本을 再現하였다.
3. 底本 자체의 글씨의 선명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4. 각 原文에 소재목을 붙여서 내용을 쉽게 알아보게 하였다.
5. 再現한 原本을 바탕으로 현토 해석하고 飛騰八法과 奇門의 내용과 비교 고찰하였다. 단, 표의 내용은 해석이 필요 없는 경우 해석을 생략하였다.

III. 本 論

金光湖²⁾가 그의 論文에서 奇門學을 醫學에 응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金의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鍼灸學 書籍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데, 본 연구는 金의 연구에 대한 文獻 根據를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神訣 및 保身訣』의 내용이 ‘奇門’에 관한 것

이 대부분이며, 이는 醫學에서 응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奇門學의 用語와 活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奇門學은 天時, 地理, 人事를 비교하여 추리하여 三才의 合發의 適否로써 人命의 富貴貧賤과 吉凶禍福의 應함을 유추하는 時空을 錯綜하는 定命學이다¹¹⁾.

奇門學을 일반에서 奇門遁甲이라고 말하는데, 奇門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奇와 門과 遁甲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奇는 三奇로 丁 丙 乙이 이에 해당하며³⁾ 이들을 각각 星奇 月奇 日奇라고 한다⁸⁾. 門은 生 傷 杜 景 死 驚 開 休의 8門을 말하는데 이는 8방을 관할하게 된다. 遁甲이란 글자 그대로 甲을 숨긴다는 뜻인데, 戊 己 庚 辛 壬 癸의 六儀와 三奇 중에 甲이 숨여지게 된다.

八門이란 生傷杜景死驚開休의 8개의 門을 말한다.¹²⁾ 八門은 八方을 각기 관할하고 四時의 運行에 따라 각기 열리는 방법과 시기, 方位가 정해진다⁹⁾.

『神訣 및 保身訣』의 내용이 奇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奇門의 布列法과 陰陽遁 9局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第1章. 神訣

書名은 원본에 본래 없으나 앞뒷면의 표지에 神訣, 保身訣이라 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假稱 『神訣 및 保身訣』이라 부르기로 한다. 著者 역시 未詳이다. 著述日은 庚戌年 음력 4月 28日(양력 6월 5일)로 되어 있는데, 庚戌年을 韓末이라고 가정하면 1910년경이라고 추정된다.

神訣의 표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현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原文1】(소제목:八脈八穴配九宮歌)

壬甲公孫卽是乾이요 癸乙照海到坤前이라.
丙口艮上內關起이요 丁是後谿兌得看이라.
庚向外關震上去요 辛從臨泣巽方先이라.
戊從坎位申脈擇이요 己是離宮列缺傳이라.

【解釋】(소제목:八脈의 八穴이 九宮에 배합되는 노래)

내용상 飛騰八法과 같으므로 八脈八穴配九宮歌라고 소제목을 붙였다.

壬과 甲은 公孫이니 즉 乾卦이고, 癸와 乙은 照海이니 坤卦의 앞에 이르렀다.

丙은 艮卦 위에 傳하니(口는 아마도 ‘傳’字인 듯하다.) 內關에서 起始하고, 丁은 後谿이니 兌卦에서 얻어 볼 수 있다.

庚은 外關을 향하니 震卦 위에서 간 것이고, 辛은 臨泣을 좇으니 巽方에서 먼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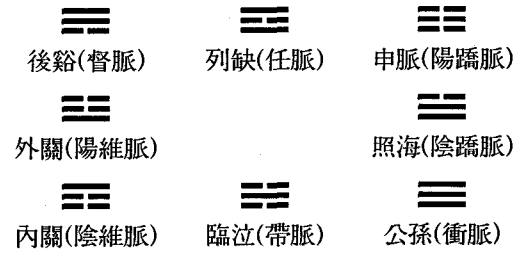
戊는 坎卦 자리에서 좇으니 申脈을 擇하고, 己는 離卦의 宮이니 列缺이라고 전해온다.

【考察】

이 내용은 文王八卦 및 十干에 奇經八穴 즉 公孫 內關 申脈 照海 臨泣 列缺 後谿 外關 등을 배속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飛騰八法에서의 八脈과 八卦의 배열과 같다.

飛騰八法은 AD1329년 王國瑞가 開發한 방법으로서 奇經八脈의 八穴을 기본으로 하여 시간에 따라서 開穴하는 곳을 자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王氏의 『玉龍經』에 먼저 보이고 徐鳳의 『鍼灸大全』과 高武의 『鍼灸聚英』¹⁾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鍼灸大全』에 기재된 靈龜取法飛騰鍼圖의 내용을 보면 飛騰八法은 靈龜八法보다 간단하며 八卦와 八穴을 配屬하는 것이 靈龜八法과 相異하다. 八脈 八穴을 八卦와 九宮數에 配合한 내용은 아래의 Figure25와 같다.¹³⁾

Figure 1. 飛騰八法の 八脈八穴配九宮八卦圖



다음으로 日時의 干支를 숫자에 배합하여 운용할 때 甲己 子午는 9, 乙庚 丑未는 8, 丙辛寅申은 7, 丁壬 卯酉는 6, 戊癸 辰戌은 5, 巳亥는 4로 계산한다. 먼저 日의 干支와 時의 干支를 해당하는 數로 합하고 난 뒤에 9로 나누고 그 나머지로 卦에 합하여 혈을 정한다. 이를 이용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日干} + \text{日支}) + (\text{時干} + \text{時支})}{9} = \text{몫} + \text{나머지}$$

즉 예를 들어 甲子日 丙寅時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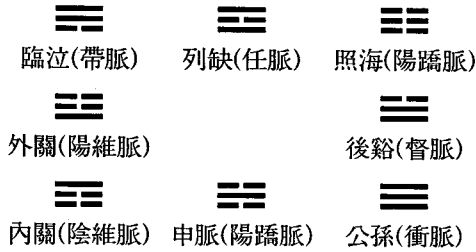
$$\frac{(9+9) + (7+7)}{9} = 3(\text{몫}) + 5(\text{나머지})$$

따라서 남는 수 5에 해당하는 卦는 中宮이 되는데 中宮에 해당하는 경우 “男寄于坤卦 取申脈 女寄于艮卦 取內關”하므로 남자는 坤卦의 申脈을, 女子는 艮卦의 內關을 사용한다.

그러나 神訣에서는 【原文-16】에 “三甲開時에 艮은 陽土이니 冬至後에는 寄艮하고 坤은 陰土이니 夏至後에는 寄坤이라”하였으니 男女로 따지지 않고 節氣로 나는 점이 다르다.

한편 이와 비슷한 靈龜八法은 文王八卦에 洛書의 숫자를 배속하여 아래의 Figure26. 九宮八卦八穴圖라고 하고, 日과 時의 干支를 기준으로 推算하여 치료할 穴位를 선택한다.

Figure 2. 靈龜八法の 九宮八卦八穴圖



靈龜八法の 開穴 計算法은 日과 時의 干支의 숫자를 합하여 日의 天干이 陽이면 9로, 日의 天干이 陰이면 6으로 각각 나누어서 남는 수를 九宮八卦八穴圖에서 찾는다. 日의 干支의 숫자 運用은 ‘甲己와 辰戌丑未는 10, 乙庚과 辛酉는 9, 丁壬과 寅卯는 8, 戊癸와 巳午는 7, 丙辛과 亥子는 6’이라는 八法逐日干支歌를 따르며, 時의 干支의 運用은 ‘甲己와 子午는 9, 乙庚과 丑未는 8, 丙辛과 寅申은 7, 丁壬과 卯酉는 6, 戊癸와 辰戌은 5, 巳亥는 4’라는 八法臨時干支歌를 응용한다. 이를 이용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日干} + \text{日支}) + (\text{時干} + \text{時支})}{9 \text{ 또는 } 6} = \text{몫} + \text{나머지}$$

즉 예를 들어 甲子日 乙丑時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frac{(10+6) + (8+8)}{9} = 3(\text{몫}) + 7(\text{나머지})$$

따라서 남는 수 7에 해당하는 卦는 兌卦로서 後谿가 이용되며, 다시 後谿와 짝이 되는 外關을 함께 配合하여 응용한다.¹³⁾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奇經鍼法の 八卦 配屬은 飛騰八法和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神訣에서는 中宮을 해석함에 있어서 【原文18-2】에 “三甲開時에 艮은 陽土이니 冬

至後에는 寄艮하고 坤은 陰土이니 夏至後에는 寄坤이라”하였으니 男女로 따지지 않고 節氣로 나는 점이 다르다.

【原文2】(소제목:生氣八卦의 選穴法)

如壬甲日 則乾爲本卦이니 先鍼本卦所屬公孫이라.

以本卦乾三連으로 作生氣 則後谿²⁾是也오 天宜 則外關也오 福德 則內關也라.

【解釋】(소제목:生氣八卦에 의하여 穴을 선택하는 방법)

가령 壬日과 甲日이면 乾卦가 本卦가 되니 먼저 本卦에 所屬되어 있는 公孫을 침놓고 本卦의 乾(☰)三連으로 生氣를 삼으면 後谿가 되고, 天宜는 外關이 되고 福德은 內關이 된다.

【考察】

내용상 日柱를 가지고 生氣 天宜 福德을 布列하는 것으로 보아 洪局布列 중 生氣八法에 의해서 치료하기 위한 穴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生氣八卦의 選穴法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다.

이 예시는 中宮의 地盤數가 6(乾)일 경우인데 乾을 中宮에 놓으면 生氣는 兌에 해당하므로 穴位는 照海이고, 天宜는 震에 해당하므로 穴位는 外關이고, 福德은 艮에 해당하므로 穴位는 內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生氣에 해당하는 穴位가 後谿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照海로 고쳐야 타당할 것이다.

【原文3】(소제목:擇時法和 坐向法)

擇時之法은 如甲乙日 則木絕於申하니 尋其生旺時라. 餘倣此라.

2) 八卦生氣法에 근거하여 照海로 고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 학 준

Table 1. 12胞胎法-陽局順數 陰局逆數

	陽局											陰局													
	胞	胎	養	生	浴	帶	冠	旺	衰	病	死	葬	水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水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水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火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火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木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木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金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土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土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坐向之法은 擇其生門方坐之하고 以其生門方看之라.

묘의 坐向을 定할 때에는 奇門을 布局하여 生門에 해당하는 方位로 잡는다.

【解釋】(소제목:때를 선택하는 법과 墓의 坐向을 보는 법)

때를 선택하는 방법은 가령 甲乙日이면 木은 申에서 絶하니 그 生旺하는 때를 찾는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墓를) 坐向하는 방법은 그 生門에 해당하는 方位로 앉히고 그 生門이 있는 方位로써 살핀다.

【考察】

五行은 春夏秋冬에 따라서 旺相休囚死로서 기운의 盛衰가 있게 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12地支로 구분하면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의 12가지의 형태로 나눔으로써, 예로부터 萬物의 生長死滅의 원리를 설명해 왔다.

12胞胎法은 陽局와 陰局에 따라서 붙여나가는 순서가 반대이다. 여기에서 火土는 同胞로서 胞를 같이 한다. 포태법은 다음의 Table7과 같다.

12胞胎法에 의하면 金은 卯酉에서 絶하고 木은 申酉에서 絶하고 火와 土는 亥子에서 絶하고 水는 巳午에서 絶한다고 한다. 따라서 甲乙의 木은 申酉에서 絶(胞)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을 선택할 때에는 胞胎法 상의 生이나 旺에 해당할 때를 잡는다.

【原文4】(소제목:鍼芒의 補瀉)

補瀉는 上爲內요 下爲外라.

手三陰은 從肩至手하니(經穴이 皆起於胸이라) 鍼芒이 從內往外가 爲補요 從外往內가 爲瀉라.

足三陽은 起頭至足하니(經穴이 起於頭하고 終於足이라) 鍼芒 補瀉는 上上이라.

手三陽은 從手至頭하니(經穴이 起於手하고 終於頭라) 鍼芒이 從外往內가 爲補요 從內往外가 爲瀉라.

足三陰은 從足至腹하니(經穴이 起於足하고 終於頭라) 鍼芒 補瀉는 上上이라.

【解釋】(소제목:鍼芒의 補瀉)

補瀉는 上이 內가 되고 下가 外가 된다.

手三陰은 肩에서 手로 이르니(經穴이 모두 胸에서 일어난다) 鍼芒(鍼尖)이 內(上)에서 外(下)로 향하게 하는 것이 補가 되고, 外(下)에서 內(上)로 향하게 하는 것이 瀉가 된다.

足三陽은 頭에서 일어나서 足에 이르니(經穴이 頭에서 일어나서 足에서 끝난다) 鍼芒의 補瀉는 위(手太陰)와 같다.

手三陽은 手에서 頭에 이르니(經穴이 手에서 일어나서 頭에서 끝난다) 鍼芒이 外(下)에서 內(上)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補가 되고, 內(上)에서 外(下)로 향하게 하는 것이 瀉가 된다.

奇門鍼法에 관한 研究

足三陰은 足에서 腹에 이르니(經穴이 足에서 일어나서 頭에서 끝난다) 鍼芒의 補瀉는 위(手三陽)과 같다.

【考察】

이는 經脈의 流走 方向에 따른 迎隨 補瀉를 설명한 것이다.

【原文5】二十四節氣의 三元局

【考察】

60甲子를 아래의 Table10과 같이 上中下의 三元局으로 나누는데 神訣에 있는 Table9는 이를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다.

上元의 甲子日부터 中元의 己巳日 등을 거쳐 下元의 戊寅日까지 15일의 1節이 그친다.

上元의 己卯日부터 中元의 甲申日 등을 거쳐 下元의 癸巳日까지 15일의 1節이 그친다.

上元의 甲午日부터 中元의 己亥日 등을 거쳐

Table 2. 二十四節氣의 三元法

		上中下		上中下		上中下		上中下		上中下		上中下
陽通	冬至	一七四	小寒	二八五	大寒	三九六	立春	八五二	雨水	九六三	驚蟄	一七四
	春分	三九六	清明	四一七	穀雨	五二八	立夏	四一七	小滿	五二八	芒種	六三九
陰通	夏至	九三六	小暑	八二五	大暑	七一四	立秋	二五八	處暑	一四七	白露	九三六
	秋分	七一四	寒露	六九三	霜降	五八二	立冬	六九三	小雪	五八二	大雪	四七一

【考察】

陽通은 위의 Table8에서 보듯이 冬至부터 芒種까지 해당하며 陰通은 夏至부터 大雪까지 해당한다. 여기에서 각 節氣의 다음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節의 上數(처음 숫자)가 上元에 해당하고 中數(가운데 숫자)가 中元에 해당하고 下數(마지막 숫자)가 下元에 해당한다.

【原文6】六十甲子의 三元法

Table 3. 六十甲子의 三元法

上局	中局	下局
甲子~戊辰	己巳~癸酉	甲戌~戊寅
己卯~癸未	甲申~戊子	己丑~癸巳
甲午~戊戌	己亥~癸卯	甲辰~戊申
己卯~癸丑	甲寅~戊午	己未~癸亥

下元의 戊申日까지 15일의 1節이 그친다.

上元의 己酉日부터 中元의 甲寅日 등을 거쳐 下元의 癸亥日까지 15일의 1節이 그친다.

다시 甲子日부터 上元을 계산하니 순환하여 그치지 않는다.

5일이 1候이므로 遁甲은 甲己를 만나서 日局으로 변하고 대개 甲子로부터 戊辰에 이르면 5日 60時에 그쳐서 上局이 되고 己巳로부터 癸酉에 이르면 또 5日 60時에 그치어 中局이 되고, 甲戌부터 戊寅에 이르면 또 5日 60時에 그치어 下局이 되니 三才之道이다.

따라서 甲己가 四仲(子午卯酉)에 더해지면 모두 上局이 되고 四孟(寅申巳亥)에 더해지면 모두 中局이 되고 四季(辰戌丑未)에 가하면 모두

Table 4. 六十甲子의 三元局

上元					中元					下元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丙子	丁丑	戊寅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己酉	庚戌	辛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두 下局이 된다.

【原文7】(소제목:奇經八穴의 位置와 所屬 經脈)

申脈은 水이니 在外踝下 微前 赤白肉間하니 膀胱經이라.

照海는 水이니 在內踝下 微前 赤白肉間하니 腎經이라.(足少陰)

外關은 火이니 在腕³⁾(外側)上二寸의 兩骨間하니 膽經⁴⁾이라.(三焦)(手少陽)

臨泣은 木이니 在足小脂⁵⁾次脂⁶⁾間의 一寸五分하니 膽經이라. 鍼二分이라.(足少陽)

五數 則陽日陽時엔 先內關하고 陰日陰時엔 先照海라.

(瘧亂에 尤好라)公孫은 土이니 在足大脂⁷⁾本節後二寸의 赤白肉間 陷中이라 脾胃經⁸⁾ 鍼三分이라.(足太陰)

後谿는 木이니 在手小脂⁹⁾本節後一寸의 赤白肉間하니 肝經¹⁰⁾이라. 鍼一分이라.(手太陽)

內關은 火이니 在腕¹¹⁾(內側)上二寸의 兩筋間하니 心(包)經이라. 鍼五分이라.(手厥陰)

(頭痛에 尤好라)列缺은 金이니 在兩手交叉하여 長指¹²⁾端處의 高骨間하니 肺經이라. 鍼三分이라(手太陰)

【解釋】

申脈은 水에 속하니 外踝의 아래에서 약간 앞의 赤白肉의 사이에 있으니 膀胱經에 속한다.

照海는 水에 속하니 內踝의 아래에서 약간 앞의 赤白肉의 사이에 있으니 腎經에 속한다.(足少陰經에 속한다.)

外關은 火에 속하니 腕의 外側에서 위쪽으로 二寸 부위의 兩骨의 사이에 있으니 膽經에 속한다.(三焦에 속하는 것으로 고친다)(手少陽經에 속한다.)

臨泣은 木에 속하니 足小趾와 次趾 사이의 一寸五分에 있으니 膽經에 속한다. 二分의 깊이로 刺鍼한다.(足少陽經에 속한다.)

위의 다섯 穴位 陽日 陽時에는 內關을 먼저 하고 陰日 陰時에는 照海를 먼저 한다.

(瘧亂에 公孫이 더욱 좋다.)公孫은 土에 속하니 足大趾의 本節에서 뒤로 二寸 부위의 赤白肉의 사이에 陷中에 있다. 脾胃經에 속하니 三分의 깊이로 자침한다.(足太陰經에 속하는 것으로 고친다.)

後谿는 木에 속하니 手小指의 本節에서 뒤로 一寸 부위의 赤白肉의 사이에 있으니 肝經에 속한다. 一分의 깊이로 刺鍼한다.(手太陽經에 속하는 것으로 고친다.)

內關은 火에 속하니 腕의 內側에서 위쪽으로 二寸 부위의 兩筋의 사이에 있으니 心(包)經에 속한다. 五分의 깊이로 刺鍼한다.(手厥陰經에 속하는 것으로 고친다.)

(頭痛에 列缺이 더욱 좋다.)列缺은 金에 속하니 兩手로 交叉하여 長指 端處의 高骨의 사이에 있으니 肺經에 속한다. 三分의 깊이로 刺鍼한

3) 腕(뱀통 완)은 '腕(팔뚝 완)을 잘못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4) 膽經은 '三焦'로 바꾸어야 한다.
 5) 脂는 '趾'를 잘못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6) 脂는 '趾'를 잘못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7) 脂는 '趾'를 잘못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8) 脾胃經은 마땅히 脾經으로 고쳐야 한다.
 9) 脂는 '指'를 잘못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10) 肝經은 마땅히 小腸經으로 고쳐야 한다.
 11) 腕(뱀통 완)은 '腕(팔뚝 완)을 잘못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12) 脂는 '指'를 잘못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다.(手太陰經에 속한다.)

【考察】

이는 奇經 八穴의 위치와 所屬하는 經脈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內關과 後谿 列缺만 刺鍼 깊이를 기록하고, 公孫과 列缺에만 主治症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原文8】(소제목:三奇的 運用과 時의 初中末)

經에 曰 陽遁은 順行하니 前取用하고 陰遁은 逆行하니 後取用이라.(以時符頭 初中末로 天上三奇와 與三門을 下¹³⁾之라.)

(假令 陽遁 一局에 丙辛日中에 甲午直符가 在三宮이면 是順行取用이라. 令丙奇가 在四宮하면 卽三奇¹⁴⁾가 到巽來하니 應時中이라. 如三奇가 到하면 直符位爲時初요 前一位爲時中이요 前二位가 應在時末也라.)

【解釋】(소제목:三奇的 運用과 時의 初中末)

陽遁은 順行하니 앞으로 취해서 쓰고 陰遁은 逆行하니 뒤에서 취해서 쓴다.(時의 符頭的 初中末로써 天上의 三奇와 三門을 布列한다.)

(가령 陽遁 1局的 丙日 辛日 중에 甲午 直符가 3宮에 있으면 이는 順行해서 取用한다. 이제 丙奇(月奇)가 4宮에 있으면 즉 三奇(丙奇)가 巽에 도달해 와서 時의 中에 應한다. 가령 三奇가 直符에 도달하면 直符의 자리가 時의 初이고 그 前의 一位가 時의 中이고 그 前의 二位가 마땅히 時의 末에 있다.)

【考察】

時의 符頭는 Table6. 時 符頭와 旬首(旬將)에

서 보는 것과 같이 甲子(初), 甲戌(中), 甲申(末), 甲午(初), 甲辰(中), 甲寅(末)의 6개가 있으며 각각의 旬首는 戊, 己, 庚, 辛, 壬, 癸가 해당된다. 이 時 旬首를 기준으로 八門을 배열하는데 특히 三奇를 가지고 星奇 月奇 日奇의 應을 보게 되므로 三奇와 三奇가 있는 三門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고찰할 수가 없었으므로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든 丙日 辛日은,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辛 丁酉 戊戌 己亥 時까지 있다. 이때 時 符頭가 戊子時부터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時까지는 甲申이며, 甲午時 乙未 丙辛 丁酉 戊戌 己亥 時까지는 甲午이다. 그 中에 直符가 3宮인 震宮에 있는 경우는 庚寅時로서 直符인 天冲이다. 이런 경우 順行해서 取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順行 取用의 의미는 直符가 있는 곳이 時의 初이고, 그 前 1位가 時의 中이고, 그 前 2位가 時의 末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直符가 3宮인 震宮에 있고 丙奇가 4宮인 巽宮에 있다면, 直符가 3宮으로 時의 初이고, 그 前 1位 4宮인 巽宮이 時의 中이고, 그 前 2位 5宮인 中宮이 時의 末이란 뜻이다.

【原文9】

三奇臨乾應

日奇가 到乾하면 有著黃衣人이 至하고 又有 纏錢人과 或帶財이 來하니 應之吉也라.

月奇가 到乾하면 有背衣服人이 來하고 有黑飛禽이 成雙而至하고 或有雲及白衣人이 來하니 應之吉也라.

星奇가 到乾하면 有人이 執刀斧하야 來라. 不然이면 有角畜而至라. 二七일에 有進金銀之物하

13) 下: '내린다', '놓는다'로 해석하니 여기는 布列하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14) 비록 三奇라고 하였으나, 문맥상 특히 丙奇를 지칭한다.

조 학 준

고 人이 持斧하여 來라. 不然이면 牽牛羊하여 至라. 應二七日로 合하면 進財 大獲하여 來하니 應吉也라.

【解釋】

三奇가 乾에 臨할 때의 應함

日奇(乙)가 乾에 이르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이르고 또한 돈궤미를 찬 사람과 재물을 가진 이가 오니 應함이 吉하다.

月奇(丁)가 乾에 이르면 衣服을 등에 진 사람이 오고 검은 날짐승이 쌍을 이루어 이르고 혹은 구름과 흰 옷 입은 사람이 오니 應함이 吉하다.

星奇(丙)가 乾에 이르면 어떤 사람이 칼과 도끼를 들고 온다. 그렇지 않으면 뿔 달린 가축이 오는 경우가 있다. 2일, 7일에는 金銀의 물건이 들어오거나 사람이 도끼를 들고 온다. 그렇지 않으면 소나 양을 끌고 온다. 2일, 7일과 합하면 재물이 들어와 크게 얻어 오니 마땅히 吉하다.

【原文10】

三奇臨坎應

日奇가 到坎하면 有着皂衣人이 來라. 不然이면 有鼓祥하니 應之吉也라.

月奇가 到坎하면 有執杖人이라. 不然이면 有黃白鳥가 徙西北來하고 或黑衣人이니 應大利라.

星奇가 到坎하면 有人이 徙西北來하되 抱小兒라. 更有風하고 或有黑雲雨가 來니 應大利라.

【解釋】

三奇가 坎에 臨할 때의 應함

日奇가 坎에 이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복치는 祥瑞가 있으니 應함이 吉하다.

月奇가 坎에 이르면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 온

다. 그렇지 않으면 노랑고 하얀 새가 서북쪽에서 이사하여 오고 혹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니 마땅히 크게 이롭다.

星奇가 坎에 이르면 어떤 사람이 서북에서 이사를 오되 어린 아이를 안고 온다. 또한 바람이 불고 혹은 검은 구름에 비가 오니 마땅히 크게 이롭다.

【原文11】

三奇到艮應

日奇가 到艮하면 有青白人을 遇하여 往來하고 或有提鐵器之物來이라.

月奇가 到艮하면 有青衣皂衣人이 至하고 又罟網賣魚人이 至하고 或飛禽이 成雙而至하니 應吉이라.

星奇가 到艮하면 有黑衣人하고 更有小兒가 持鐵器하여 至하고 或携文書紙筆하니 應之吉이라.

【解釋】

三奇가 艮에 이를 때의 應함

日奇가 艮에 이르면 靑白의 옷을 입은 사람(靑白人)을 만나서 왕래하고 혹은 鐵器로 된 물건이 오는 경우가 있다.

月奇가 艮에 이르면 푸른 옷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그물 쳐서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 오고 혹은 날짐승이 쌍을 이루어 오니 마땅히 吉하다.

星奇가 艮에 이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어린 아이가 鐵器를 가지고 오고 혹은 文書와 紙筆을 휴대하고 오니 應함이 吉하다.

【原文12】

三奇到震應

日奇가 到震하면 有武士가 執槍刀하고 又主

雷祥鼓祥이 應之하니 主一年內大旺吉이라.

月奇가 到震하면 有罟網賣魚이 人하고 又遊獵人이 至하고 或小兒가 或群而來하니 應之大吉이라.

星奇가 到震하면 有女人이 成雙而至하고 又飛鳥가 成雙하야 南方으로 來하니 應之吉也라.

【解釋】

三奇가 震에 이르는 때의 應함

日奇가 震에 이르면 武士가 창과 칼을 잡고 오고 또한 우레 치는 祥瑞와 북치는 祥瑞가 응함을 주하니 일년 내에 크게 旺吉하게 된다.

月奇가 震에 이르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냥하는 사람이 오고 혹은 어린 아이가 떼를 지어오니 應함이 大吉하다.

星奇가 震에 이르면 女人이 쌍을 이루어 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나는 새가 쌍을 이루어 南方에서 오니 應함이 吉하다.

【原文13】

三奇到巽應

日奇가 到巽하면 有白衣人이 乘赤馬하야 來하고 或小兒가 至하니 應之吉也라.

月奇가 到巽하면 有樂群하고 又唱喏群이 南來하야 應이라.

星奇가 到巽하면 有小兒가 趨牛하야 來하고 南方에 有黑雲하고 或馬騾人이 至하니 應之吉也라.

【解釋】

三奇가 巽에 이를 때의 應함

日奇가 巽에 이르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어린 아이가 오니 應함이 吉하다.

月奇가 巽에 이르면 風樂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한 노래하고 떠드는 무리가 남쪽에서 와서 應한다.

星奇가 巽에 이르면 어린 아이가 소를 쫓아서 오고 南方에 검은 구름이 있고 말과 나귀를 탄 사람이 오니 應함이 吉하다.

【原文14】

三奇臨離應

日奇가 到離하면 有殘病眼脚人하고 或小兒가 騎牛馬驢하고 又黑白禽이 從東方으로 來하니 應利라.

月奇가 到離하면 有火風하고 又黃黑飛禽이 成雙而至하니 應吉也라.

星奇가 到離하면 有披青色衣人이 至하야 進財하니 大吉也라.

【解釋】

三奇가 離에 臨할 때의 應함

日奇가 離에 이르면 눈과 다리 아픈 병을 앓은 사람이 오고 또는 어린 아이가 소나 말이나 노새를 타고 오고 또는 검거나 흰 날짐승이 東方에서 오니 마땅히 이롭다.

月奇가 離에 이르면 火風이 있고 노랗고 검은 날짐승이 쌍을 이루어 오니 마땅히 吉하다.

星奇가 離에 이르면 푸른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재물을 주니 大吉하다.

【原文15】

三奇臨坤應

日奇가 到坤하면 有人이 袞白하고 并披孝服하야 乃雷群馬牛하고 或鼓群하니 應之吉也라.

月奇가 到坤하면 有人着皂衣과 及鳥鵲이 自南北方으로 來하고 或鼓群하니 應之吉也라.

星奇가 到坤하면 有人着青衣과 及黑飛禽과 或擔水人을 遇하니 應之吉也라.

【解釋】

三奇가 坤에 臨할 때의 應함

日奇가 坤에 이르면 어떤 사람이 흰 곤룡포를 입고 아울러 孝服을 입고 나타나서 우레의 祥瑞로 말과 소를 하고 혹은 복치는 祥瑞가 있으니 應함이 吉하다.

月奇가 坤에 이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까치가 南北方에서 오고 또는 복치는 무리가 있으니 應함이 吉하다.

星奇가 坤에 이르면 푸른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날짐승과 물을 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니 應함이 吉하다.

【原文16】

三奇臨兌應

日奇가 到兌하면 有女人이 三五至라. 不然이면 鳥鳴하니 應之吉也라.

月奇가 到兌하면 有執杖人이 從東으로 來하고 或抱兒人을 遇하고 或斑色飛禽이 來라.

星奇가 到兌하면 有持文書紙筆人이 至하고 或打魚賣網人을 遇하고 有黃飛禽이 來하니 應吉이라.

【解釋】

三奇가 兌에 임할 때의 應함

日奇가 兌에 이르면 女人이 삼삼오오로 온다. 그렇지 않으면 새가 우니 應함이 吉하다.

月奇가 兌에 이르면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 동쪽에서 오고 또는 아이를 안은 사람을 만나고 혹은 얼룩무늬의 날짐승이 온다.

星奇가 兌에 이르면 문서와 지필을 지닌 사람이 오고 혹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치는 사람을 만나고 노란 날짐승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

마땅히 吉하다.

【考察】

原文9부터 原文16까지는 丁奇(星奇) 丙奇(月奇) 乙奇(日奇)가 八卦에 應하는 일을 기록한 것이다. 奇門에 대한 古書는 諸葛武侯의 『奇門遁甲統宗大全』, 필사본의 『奇門遁甲秘笈大全』, 鄭道生の 『遁甲演義』, 劉基의 『烟波釣垂奇門定局』, 필사본의 『遁甲符應經』⁷⁾, 필사본의 『太乙統宗寶鑑』, 四庫全書에 있는 『巫經總要』, 『太乙金鏡式經』, 『卜法詳考』, 無名人의 『奇門秘窺』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古書를 구하지 못하여 原文의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原文17】 (소제목:直符와 直使)

八門爲直使요 九星爲直符라.

直使加時宮이요 直符加時干이라.

【解釋】 (소제목:直符와 直使)

直符와 直使에 대한 설명이다.

八門이 直使가 되고 九星이 直符가 된다. 直使는 時宮에 加하고 直符는 時干에 加한다.

【考察】

第1章의 天蓬九星과 時家八門에 설명이 자세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時 旬首 所在宮의 定位門을 直使라고 하니 八門이 直使가 되고, 時 旬首 所在宮의 定位星을 直符라고 하니 九星이 直符가 된다. 直符와 直使는 夫婦와 같이 한 쌍이 된다.

【原文 18-1】 (소제목:烟局布列 중의 伏吟局¹⁵⁾)

15) 본래 一開一闔法이라 하였는데 내용상 烟局布列 중의 伏吟局에 대한 설명이므로 소제목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假令 甲戌時 陰九局이면 此局은 爲伏吟이나 然이나 吉也라.

Figure 3. 一開一闔의 예 1

癸 ☵	戊 ☰	壬 丙 ☱
丁 ☲		庚 ☱
己 ☷	乙 ☱	辛 ☱
任 生		

假令 甲戌時¹⁶⁾(甲子時) 陽一局이면 此局은 亦 伏吟이나 然이나 凶也니 不用이라.

Figure 4. 一開一闔의 예2

辛 ☱	乙 ☱	己 ☱ 芮 死
庚 ☱		丁 ☱
壬 丙 ☱	戊 ☱	癸 ☱

【解釋】 烟局布列 中の 伏吟局

가령 甲戌時의 陰九局이면 이 局은 伏吟이 되나 然이나 吉하다. 가령 甲子時의 陽一局이면 이 局은 또한 伏吟이 되나 凶하다. 쓰지 않는다.

【考察】

甲戌時 陰遁 9局은 甲子 戊의 符頭가 9의 離宮에서 시작하여 陰遁이므로 九宮逆行으로 가니 地盤의 六儀 三奇는 아래의 Figure5와 같다.

Figure 5. 一開一闔의 예(地盤의 六儀三奇)

甲寅 癸	甲子 戊	丙
丁	甲辰 壬	甲申 庚
甲戌 己	乙	甲午 辛

다시 여기에 天盤의 六儀 三奇를 붙인다. 甲戌時의 旬首는 己이니, 時 旬首를 時干인 甲(戌)에 올려놓으면 戊가 戊에 올라가므로 伏吟局이 되며 나머지 六儀 三奇를 배포하면 아래의 Figure6과 같다.

Figure 6. 一開一闔의 예(天盤의 六儀三奇)

癸 甲寅 癸	戊 甲子 戊	丙 丙
丁 丁	甲辰 壬	庚 甲申 庚
己 甲戌 己	乙 乙	辛 甲午 辛

다시 여기에 天蓬九星을 붙인다. 만약 伏吟局이 아니라면 時 旬首(甲戌時의 旬首는 己) 所在宮(艮宮)의 定位星(直符)은 九星定位 중에 天任에 해당한다. 또한 時柱인 甲戌의 時干은 甲인데 甲은 은둔하므로 甲子 戊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離宮에 天任을 붙이고 나머지는 陰陽遁을 막론하고 八卦順行으로 붙인다. 그러나 伏吟局은 九星을 定位에 그대로 붙인다. 天蓬九星을 붙이면 아래의 Figure7과 같다.

16) 伏吟局이 되려면 甲戌時를 甲子時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설명은 甲子時로 한다.

조 학 준

Figure 7. 一開一闔의 예(天蓬九星)

癸 輔 癸	戊 英 戊	丙 芮 丙
丁 冲 丁	壬 禽 壬	庚 柱 庚
己 任 己	乙 蓬 乙	辛 心 辛

다시 여기에 時家八門을 붙인다. 時 旬首(甲戌時의 旬首는 己) 所在宮(艮宮)의 定位門은 生門인데, 三子元局 上 陰遁 9局이므로 離宮에서 甲戌 己를 일으켜서 離宮에 直使인 生門을 붙이고 나머지는 陰陽遁을 막론하고 八卦順行으로 붙인다. 時家八門을 붙이면 아래의 Figure8과 같다.

Figure8. 一開一闔의 예(時家八門)

癸 輔 癸 休	戊 英 戊 生(直使)	丙 芮 丙 傷
丁 冲 丁 開	壬 禽 壬	庚 柱 庚 杜
己 任(直符) 己 驚	乙 蓬 乙 死	辛 心 辛 景

Figure25-4에는 天蓬九星 중의 天任이 離宮에 있고 時家八門의 生門도 離宮에 있는데 반해 Figure25에는 天任과 生門이 모두 艮宮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Figure25는 時 旬首 所在宮에 해당 九星과 八門을 표시하고 나서 다시 『神訣 및 保身訣』 내의 圓板圖를 움직여 따지기 위해서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를 가지고 따진 九星과 八門의 배치는 Figure 25-4와 같다.

마지막으로 이 局은 伏吟이지만 吉하다고 한

것은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더욱 연구해 보아야 한다.

가령 甲子時 陽遁 1局이면 甲子 戊의 符頭가 1의 坎宮에서 시작하여 陽遁이므로 九宮順行으로 가니 地盤의 六儀 三奇는 아래의 Figure9와 같다.

Figure 9. 一開一闔의 예(地盤의 六儀三奇)

甲午 辛	乙	甲戌 己
甲申 庚	甲辰 壬	丁
丙	甲子 戊	甲寅 癸

다시 여기에 天盤의 六儀 三奇를 붙인다. 甲子時의 旬首는 戊이니, 時 旬首(戊)를 時干인 甲(戊)에 올려놓으면 己가 戊에 올라가므로 伏吟 局이 되며 나머지 六儀 三奇를 배포하면 아래의 Figure10과 같다.

Figure 10. 一開一闔의 예(天盤의 六儀三奇)

辛 辛	乙 乙	己 己
庚 庚	壬 壬	丁 丁
丙 丙	戊 戊	癸 癸

다시 여기에 天蓬九星을 붙인다. 時 旬首(甲子時의 旬首는 戊) 所在宮(坎宮)의 定位星(直符)은 九星定位 중에 天蓬에 해당한다. 또한 時柱인 甲子의 時干은 甲인데 甲은 은둔하므로 甲子 戊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坎宮에 天蓬을 붙이고 나머지는 陰陽遁을 막론하고 八卦順行으로 붙인

다. 天蓬九星을 붙이면 아래의 Figure11과 같다.

Figure 11. 一開一闔의 예(天蓬九星)

癸 輔 癸	戊 英 戊	丙 芮 丙
丁 冲 丁	壬 禽 壬	庚 柱 庚
己 任 己	乙 蓬(直符) 乙	辛 心 辛

다시 여기에 時家八門을 붙인다. 時 旬首(甲子時의 旬首는 戊) 所在宮(坎宮)의 定位門은 休門인데, 三元局 上 陽遁 1局이므로 坎宮에서 甲子 戊를 일으켜서 坎宮에 直使인 休門을 붙이고 나머지는 陰陽遁을 막론하고 八卦順行으로 붙인다. 時家八門을 붙이면 아래의 Figure12와 같다.

Figure 12. 一開一闔의 예(時家八門)

癸 輔 癸 杜	戊 英 戊 景	丙 芮 丙 死
丁 冲 丁 傷	壬 禽 壬	庚 柱 庚 驚
己 任 己 生	乙 蓬(直符) 乙 休(直使)	辛 心 辛 開

Figure26-4에는 天蓬九星 중의 天芮와 時家八門의 死門이 모두 坤宮에 있으며, 이는 Figure26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이 局은 伏吟에 해당하니 凶하여 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伏吟은 作事가 無成하고 多成多敗하니 不幸하다⁴⁾고 하였다.

【原文 18-2】 一開一闔法

三甲開時에 艮은 陽土이니 冬至後에는 寄艮

하고 坤은 陰土이니 夏至後에는 寄坤이라.

【解釋】 一開 一闔의 法

三甲이 開할 때에 艮은 陽土이므로 冬至 後에는 艮에 의지하고 坤은 陰土이므로 夏至 後에는 坤에 의지한다.

【考察】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니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一開 一闔의 용어는 鍼法에 있어서 子午流注에도 사용되어 鍼을 놓을 수 있는 穴을 ‘開’로, 鍼을 놓아서는 안 되는 穴을 ‘闔’으로 설명하지만, 奇門鍼法의 활용에 대한 내용임은 알 수 있으나, 활용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原文 18-3】 三殺論

庚은 太白이요 丙은 熒惑이니 庚加丙 則可畏요 丙加庚 則不畏라.

【解釋】 三殺論

庚은 太白星이고 丙은 熒惑星이니 地盤의 庚이 天盤의 丙에 더해지면 두려울 만하고 地盤의 丙이 天盤의 庚에 더해지면 두렵지 않다.

【考察】

이는 三殺에 대한 설명이다. 五土는 天罡(천강)이라는 殺星이 되고 七火는 熒惑이라는 殺星이 되며 九金은 太白이라는 殺星이 된다⁴⁾. 따라서 庚은 太白, 丙은 熒惑, 戊는 天罡의 三殺이 된다. 만약 地盤 庚이 天盤 丙에 더해지면 上克下¹⁰⁾로 順이 되므로 두렵지 않고, 地盤의 丙이 天盤의 庚에 더해지면 下賊上¹¹⁾으로 逆이 된다.

IV. 總括 및 考察

『神訣 및 保身訣』은 1900년대의 우리나라 의서가 거의 수록된 韓國醫學大系에 발견되지 않았으며, 19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의서에 대한 解題를 작성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에도 빠져 있는 저서이다.

또한 手冊의 表面에 아무런 姓名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著者 역시 未詳이다.

著述日은 庚戌年 음력 4월 28日(양력 6월 5일)로 되어 있는데, 庚戌年을 韓末이라고 가정하면 1910년경이라고 추정된다.

내용은 飛騰八法の 文王八卦와 奇經八穴의 配屬, 奇經八穴의 位置, 鍼芒의 補瀉, 陽遁 陰遁의 局別로 찾아보기 쉽게 만든 方圖 및 회전하여 맞춰볼 수 있게 만든 3重의 圓板圖, 奇門의 각 卦의 應, 一開一闔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현재 알려져 있는 鍼法과는 사뭇 다르다.

手冊의 모양은 펼치면 屏風과 같은데 앞뒤로 도표와 설명이 되어 있다. 앞쪽(편의상 神訣로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을 앞쪽이라 하였다.)에는 60甲子の 三元法과 60甲子の 三元局, 奇經八穴의 穴位, 陰遁 一局부터 九局까지의 圓板圖 및 각 局別 60甲子 時에 따른 直符 直使의 推算에 관한 方圖로 되어 있고, 뒤쪽(편의상 保身訣로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을 뒤쪽이라 하였다.)에는 역시 陽遁 一局부터 九局까지의 圓板圖 및 각 局別 60甲子 時에 따른 直符 直使의 推算에 관한 方圖, 奇門의 각 卦別 吉凶, 直符와 直使의 간단한 설명, 鍼의 一開一闔法으로 되어 있다.

먼저 이 手冊의 內容은 기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第1章에서 奇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第2章에서 『神訣 및 保身訣』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飛騰八法の 文王八卦와 奇

經八穴의 配屬, 奇經八穴의 位置, 鍼芒의 補瀉, 陽遁 陰遁의 局別로 찾아보기 쉽게 만든 方圖 및 회전하여 맞춰볼 수 있게 만든 3重의 圓板圖, 奇門의 각 卦의 應, 一開一闔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현재 알려져 있는 鍼法의 用語와 內容 面에서 매우 다르다.

手冊의 모양은 펼치면 屏風과 같은데 앞뒤로 도표와 설명이 되어 있다.

앞쪽(편의상 神訣로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을 앞쪽이라 하였다.)에는 24절기를 陽遁 陰遁의 上中下로 나눈 것과 60甲子를 上中下의 局으로 나눈 것, 奇經八穴의 穴位, 陰遁 一局부터 九局까지의 圓板圖 및 각 局別 60甲子 時에 따른 直符 直使의 推算에 관한 方圖로 되어 있다.

뒤쪽(편의상 保身訣로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을 뒤쪽이라 하였다.)에는 역시 陽遁 一局부터 九局까지의 圓板圖 및 각 局別 60甲子 時에 따른 直符 直使의 推算에 관한 方圖, 奇門의 각 卦別 吉凶, 直符와 直使의 간단한 설명, 鍼의 一開一闔法으로 되어 있다.

【原文1】의 내용은 文王八卦 및 十干에 奇經八穴 즉 公孫 內關 申脈 照海 臨泣 列缺 後谿 外關 등을 배속한 것을 설명한 것으로, 飛騰八法에서의 八脈과 八卦의 배열과 같으나 沸騰八法 자체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原文2】의 내용은 奇門의 洪局布列法の 生氣八卦를 이용한 選穴法에 대한 것이다.

이를 실제 臨床에서 활용하자면, 환자를 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날이 어느 天干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여 飛騰八法の 八脈八穴配九宮八卦에 따라서 그 날의 天干에 속하는 八卦(이를 本卦라 한다.)를 찾아서 그 卦에 배속된 穴로 主穴을 삼는다. 다시 本卦를 중심으로 生氣八卦

를 布列하여 生氣, 天宜, 福德의 吉運에 배속된 穴로 補助穴을 삼는다.

그러나 吉門을 어느 경우에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이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原文3】의 내용은 擇時法과 坐向法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12胞胎法과 奇門의 時家八門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原文4】의 내용은 鍼芒의 補瀉에 대한 것으로 經脈의 流走 方向에 따른 迎隨 補瀉를 따르고 있다.

【原文5】의 내용은 二十四節氣의 三元局에 관한 표이다.

【原文6】의 내용은 六十甲子의 三元法에 관한 표이다.

【原文7】의 내용은 奇經 八穴의 위치와 所屬하는 經脈에 대한 것이다. 특히 內關과 後谿 列缺만 刺鍼 깊이를 기록하고, 公孫과 列缺에만 主治症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原文8】의 내용은 三奇의 運用과 時의 初中末에 관한 것이다.

【原文9】부터 【原文16】까지는 丁奇(星奇) 丙奇(月奇) 乙奇(日奇)의 三奇가 八卦에 應하는 일에 대한 내용으로서, 原文의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原文17】의 내용은 直符와 直使에 대한 것으로, 時 旬首 所在宮의 定位門을 直使라고 하니

八門이 直使가 되고, 時 旬首 所在宮의 定位星을 直符라고 하니 九星이 直符가 된다.

【原文 18-1】의 내용은 烟局布列 중의 伏吟局에 대한 것이다.

【原文 18-2】의 제목은 一開一闔法이라 되어 있고, 내용은 “三甲開時에 艮은 陽土이니 冬至後에는 寄艮하고 坤은 陰土이니 夏至後에는 寄坤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니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原文 18-3】의 내용은 三殺論에 대한 것이다.

陰遁 第1局부터 第9局까지와 陽遁 第1局부터 第9局까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圓板圖 위에 적혀 있는 4개의 節氣의 三元은 각 局에 속하는 節氣의 三元을 뜻한다.

圓板圖를 살펴보면, 遁甲法은 三重으로 三才를 상징하므로 上層은 象天하니 天盤과 九星을 배열하고 中層은 象人하니 八門을 열고 下層은 象地하니 地盤과 八卦 九宮을 정한다.

方圖를 살펴보면, 時가 60甲子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찾아서 上에 적혀 있는 숫자를 보고 九星의 直符를 정하고 下에 적혀 있는 숫자를 보고 時家八門의 直使를 정한다.

直符와 直使를 정하면 나머지는 圓板圖를 돌려서 맞춤으로써 찾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다.

『神訣 및 保身訣』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陰陽遁 제1局부터 제9局까지의 圓板圖와 方圖는 烟局布列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布列하더라도 사용하는 穴位를 정하는 것에 대한 언

급이 거의 없다. 奇門鍼法에 대한 내용은 一開一闔法에 소개하고 있으나 “三甲이 開할 때에 艮은 陽土이므로 冬至 後에는 艮에 의지하고 坤은 陰土이므로 夏至 後에는 坤에 의지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金光湖²⁾에 의하면 먼저 直使穴을 사용하고, 다음에 질병에 따른 特定穴을 사용한 후, 生門穴로 마무리 하되, 男左女右의 원칙을 따르며 증상의 특성에 맞을 때 遁假詐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 임상에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줄 鍼灸學 書籍이 없었던 것이 아쉬운데, 『神訣 및 保身訣』이 비록 奇門鍼法の 구체적인 活用に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鍼法 중에 ‘奇門鍼法’을 사용한 점과 奇門學을 鍼法에 응용할 수 있다는 證據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용해야 할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이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3. 『神訣 및 保身訣』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陰陽遁 제1局부터 제9局까지의 圓板圖와 方圖는 烟局布列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布列하더라도 사용하는 穴位를 정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奇門鍼法에 대한 내용은 一開一闔法에 소개하고 있으나 “三甲이 開할 때에 艮은 陽土이므로 冬至 後에는 艮에 의지하고 坤은 陰土이므로 夏至 後에는 坤에 의지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神訣 및 保身訣』을 통해 奇門을 鍼法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 이에 대한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임상 활용을 통해서 그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V. 結 論

『(手冊)神訣 및 保身訣』의 原文을 현토 해석하고 분석한 결과, 奇門鍼法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고, 奇門鍼法の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神訣 및 保身訣』에서는 奇門布局法 중에 洪局布列法の 生氣八卦를 사용하기도 하고, 時家布局을 위주로 하는 烟局布列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時家布局의 경우, 生氣八卦에 의하여 穴을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환자를 보는 날을 기준으로 本卦를 정하여 飛騰八法의 八脈八穴配九宮八卦圖에 의하여 主穴을 선택하고, 本卦를 중심으로 生氣八卦를 배속하여 生氣 天宜 福德에 해당하는 穴을 補助穴로 삼는다. 그러나 어떻게 구별해서

參 考 文 獻

1. 高武. 鍼灸聚英.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1：266.
2. 金光湖. 奇門의 醫學的 運用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 金星旭. 九宮秘訣. 서울：明文堂. 1999：64
4. 金于齋 編著. 洪烟眞訣精解. 서울：明文堂. 1993：30, 42
5. 金于齋. 新稿洪烟眞訣精解. 서울：삼신서적. 1967：22-4
6. 金于齋. 陰陽萬歲曆. 서울：明文堂. 1999：193
7. 朴興植. 奇門遁甲神機, 서울：고려한의서점. 1996：3
8. 揚力 著, 金忠烈 外 옮김. 周易과 中國醫學 (中). 서울：법인문화사. 1995：31

奇門鍼法에 관한 研究

9. 吳澤鎭. 奇門遁甲秘經. 서울 : 明文堂. 1992 : 54
 10. 李奇穆. 奇學精說. 서울 : 明文堂. 1991 : 96
 11. 李奇穆. 東奇精解 卷一. 서울 : 朝光寺. 1969 : 1, 252
 12. 張耀文. 奇門天書平註. 臺北 : 創譯出版社. 1982 : 2
 1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 (下). 서울 : 集文堂. 1991 : 1137, 1144
 14. 崔秀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 196-202
- *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논문 본문에 그림, 도표 및 참고문헌이 모두 실리지 않았음을 밝혀둔다.